

# “재판매가격제는 존속돼야 한다”

## 외국의 경우와는 사정이 달라... 철폐하면 큰 혼란 야기

김성재  
일지사 대표

도서의 재판매가격(再販賣價格, resale price) 유지 제도의 부분 철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출판시장 개방과 때를 맞춰 우선 도서 재고분이나 잡지 과월호(過月號), 장기 베스트셀러, 사전류 등의 재판매 가격제(당국의 발표는 ‘정가제’라고 했음)를 폐지하여 서점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서적에 대한 재판매가격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란단다. (문화일보 3월 5일자)

### 재판매가격 유지제한

출판계와 서점계의 많은 노력으로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재판매가격 유지제가 시행된 것은 1977년부터였다. 그리하여, 서점에서의 과열되고 문란했던 책의 투매 행위라든가, 더 깎아달라고 하는 소비자(독자)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 서점 사이의 실랑이 같은 것이 사라지고 책은 으레 정가대로 사고파는 걸로 인식돼 왔던 것이다.

재판매가격 유지제하에서의 출판물의 정가(published price)란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기준 가격인 동시에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게 파는 일정한 소매가격이다. 또한, 메이커인 출판사가 소비자용으로 정한 불박이 가격으로서 소비자가격인 동시에 소비자인 독자의 구매가격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매상이건 소매상이건 소비자전 정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책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관계로 소비자가격이 달라지는 자유가격 제도하의 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으로 여겨 왔다. 책은 으뜸가는 문화상품이며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도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정책을 부분 철폐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도서에 일률적으로 정가제를 적용하는 도서정가제는 공정거래 위반”이라며 “가격경쟁을 막고 있는 정가제 유지 대상 출판물을 축소하겠다”고 하며 〈재판매가격 유지 개선 방안〉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었는데, 출판물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조치에 대한 출판계의 크나큰 반발로 말미암아 일단

2년간 유보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당시의 재판매가격 유지 부분 철폐의 대상출판물은 이번의 것과는 달리 참고서·사전·만화와 출간 후 일정 기간(6개월~1년)이 지난 도서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참고서·만화가 빠지고 잡지 과월호와 장기 베스트셀러가 대상 품목에 들었다. 도서 재고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 대상에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도서로 못박았지만 이번에는 도서재고분이라고만 발표되어 그 대상을 잘 가능하기 어렵다. ‘도서 재고분’이란 출판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을 말하는 것이니, 오늘 입고된 신간일지라도 재고분에 해당된다. 아마 출간한 지 오래되어 잘 나가지 않는 책의 재고를 말하려 한 것 같은데, 퍼낸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나갈 가망이 없는 책도 있고, 오래된 책일지라도 생명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살아 있는 책(living stock)도 있는 것이다.

### 철폐하면 유통질서 무너진다

이 ‘도서 재고분’에 관해서는 영국의 정가서적협정(正價書籍協定, Net Book Agreement)에 있는 정가서적 판매의 표준적 제조조건(Standard Conditions of Sale of Net Book)의 제2조와 제3조를 참조해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위탁판매 제도가 아니고 이른바 매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영국 사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참고 삼아 그 제2조와 제3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정가(正價)의 서적이, 만약 a) 서적판매업자가 부수에 상관없이 최후에 구매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넘는 동안, 그 책이 그 서적판매업자의 재고품으로 된 때와 b) 그 서적을 원가(原價, cost price) 또는 할인받은 가격(reduced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해 출판업자에게 제공하겠노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을 때는, 정가(net published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중에게 판매 또는 판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정가의 책(net book)이 만일 헌책(second hand)인데다 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돼 있으면, 이것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중에게 판매 또는 판매용으로



책은 수요와 공급으로 소비자 가격이 달라지는 일반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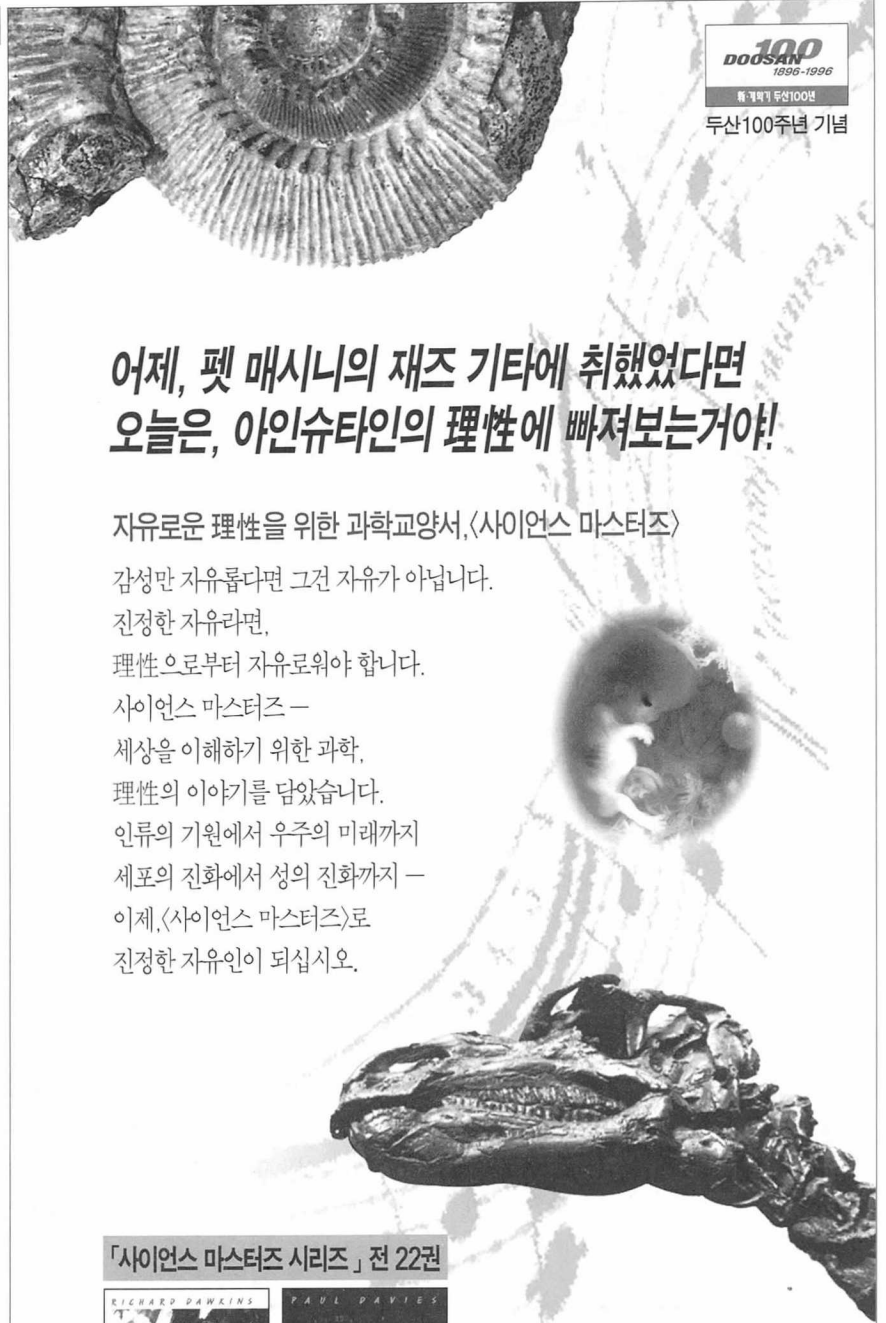
제공할 수 있다.

또, ‘장기 베스트셀러’도 재판매가격 유지제 철폐 품목으로 들었는데, 출판사가 독자로부터 초과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란단다. 과연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다. 특정 품목만 재판매가격 유지에서 벗어나면 단 품목은 더욱 안 팔리고 그 품목만 한층 더 잘 팔릴 것이며, 유통업자들로부터 출고 할 인율을 낮춰 달라는 성화 때문에 할인율을 낮추는 대신 정가는 엄청나게 올릴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의 의도대로 부분철폐가 아닌 전면철폐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누가 특정 책만 할 인받아 사려 할 것이며, 누가 특정 책만 할 인하여 팔려 할 것인가? 유통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출판 시장이 개방되면 하드북(정장본)과 페이퍼북(문고본), 신간과 재판 사이의 가격을 차등화하고 있는 구미(歐美) 등 선진국 출판사의 공세가 대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외

국 대형 출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적 유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해 내년부터 도서 정가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드북’은 ‘하드바운드 북(hardbound book)’ 또는 ‘하드커버 북’이라 해야 맞는 말이고, ‘페이퍼북’은 ‘페이퍼 백(paperback)’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페이퍼백이 곧 문고본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재판’은 ‘중쇄(重刷)’ 또는 ‘증쇄(增刷)’를 잘못 표현한 것 같다.]

하드바운드 북과 페이퍼백 사이의 가격은 우리나라에서도 진작부터 차등화돼 있어 문제될 일이 아니고, 국내 서적 유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를 철폐하는 니보다는 이 제도를 더욱 잘 다져 놓는 게 서적 유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의 부분 철폐로 우리의 출판시장을 악화시켜서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가대할 핵심과 지구가 부딪힌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비워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평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레이크 지음



**⑤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의 산-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스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 됩니다.

**동아출판사**  
영업 (02)861-4818 / (02)853-5608

도서 재판매가격 유지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무분별한 가격할인 싸움으로 유통질서가 엉망이 된다. 또 책값이 뛰고, 할인율을 높일 수 없는 학술서나 고급 교양서들은 서점에서 거들떠보지 않으므로 자연히 책의 질도 저하된다. 책의 품격을 존중하는 문화전통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 제도는 마땅히 존속돼야 할 것이다.

는 결코 안 될 일이다.

### 무분별한 가격할인 싸움 벌어질 것

이제 재판매가격 유지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출판계는 물론 서적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곧, 서적의 소매가격을 서점에서 자유로이 결정한다면 무분별한 가격할인의 추악한 싸움이 벌어져 유통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서점과 출판사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며, 자본력이 튼튼하거나 저질 출판물을 내는 출판사만 살아남을 것이다.

둘째, 독자에게 지대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곧, 책값은 몹시 앙등할 것이고, 할인율을 높일 수 없는 학술서나 수준 높은 교양서 같은 것은 서점에서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니, 자연 베스트셀러만 노리는 출판 활동으로 인해 책의 질도 저하되고 읽을 만한 책은 서점에서 사라져버려 독서욕이 감퇴할 것이다.

셋째, 높은 질의 저작물은 저술해 봤자 서점에 꽂히지도 않을 것이며 말아 줄 출판사도 없을 것이니 저작자들의 저술 의욕이 상실될 것이다. 이는 학문의 위기를 가져오고 문화의 저속화를 빚어 나라 바로세우기와는 거리가 먼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판 나라에서는 도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도서 할인판매의 대응책으로 일찍이 1899

년에 정가서적협정(Net Book Agreement)이라는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를 마련한 영국에서는 지난해에 일부 출판사가 이 협정에서 이탈하자 영국의회 유산검토위원회(National Heritage Committee)가 나서서 정가서적협정은 영국에 꼭 남겨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약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이 제도를 정식으로 다시 인정한 셈이다.

### 유통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영국 말고도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재판매가격 유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 때 프랑스에서 이 제도를 철폐하였더니 책값이 일반 물가보다 훨씬 앞서르게 앙등한 데다 매상은 딱 떨어져서 할수없이 부활시켰다고 한다. 이 제도의 철폐가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서 재판매가격 유지제 철폐를 들고나왔다. 이제 일본서적협회와 잡지협회가 들고일어나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국도서관대회에서도 철폐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도서의 재판매가격 유지제 존속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는 등 시끄럽게 되자 당국에서는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할인경쟁이 치열하고 책값이 판 물가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며, 팔리는 책 간행에만 급급하여 출판할 가치가 있는 책의 출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그런 미국이 우리 시장에서 이 제도를 문제삼는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출판물에 한해서만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도서의 품격을 존중하는 좋은 문화적 전통을 살리고, 독자와 저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양식있는 출판사와 서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도서 재판매가격 유지 제도는 영원히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니, 국내 서적유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외국 대형 출판사의 출판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7면 참조) ❖